

雇傭職業能力開發研究
第18卷(3), 2015. 12, pp. 57~88
© 韓國職業能力開發院

초기 청소년기 진로결정수준과 대학 및 전공 만족도가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에 미치는 영향*

강 현 구** · 송 지 나*** · 정 수 지**** · 이 순 형*****

청소년기는 충분한 자아성찰 및 진로탐색을 통해 성인기 이후까지 이어지는 긍정적인 자아 발달의 중요한 시기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성인기로 이행하면서 경험하는 자아정체감의 변화 궤적을 분석하고, 변화 궤적에 따른 집단별 구분을 통해 초기 청소년기 진로결정수준과 대학 입학 후 대학 만족도 및 전공 만족도가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에 따른 집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이를 위해 종단자료인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중학교 3학년 코호트의 1차, 4차, 7차, 10차년도 자료를 활용했다. 연구결과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에 따라 크게 “고수준 상승집단”, “지속 하락집단”, “평균수준 상승집단”, “저수준 상승집단”, “저수준 지속집단”의 5개 집단으로 구분되었고, 카이제곱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각 집단 별로 중학교 3학년 때의 진로결정수준,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의 대학 만족도 및 전공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중학교 3학년 때의 진로결정수준과 대학교 1학년 때의 전공 만족도가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 집단 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 차원에서 청소년 유형별로 적합한 진로탐색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자아정체감 및 진로탐색능력 향상의 열쇠임을 시사한다.

- 주제어 : 자아정체감 발달, 준모수적 집단중심 접근방법, 진로교육

* 투고일: 2015년 06월 30일, 심사일: 09월 02일, 게재확정일: 2015년 09월 25일
이 논문은 “제10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음.
** 제1저자, Visiting scholar and Project researcher, Institute of Asia Research,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kang.hyungu@gmail.com)
*** 제2저자(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lovemejn@snu.ac.kr)
**** 제3저자,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박사통합과정 (sususu43@snu.ac.kr)
***** 제4저자,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ysh@snu.ac.kr)

I. 서론

청소년기는 자아에 대한 고민과 탐색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청소년기에 겪는 심리적 혼란과 위기는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자아정체감 확립은 개인의 진로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김희진, 2001; 서봉연, 1979; Erikson, 1959), 자아정체감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인기로의 전이 이후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혼돈을 겪거나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게 된다(Shaffer & Kipp, 2010). 또한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 위기를 겪지 않고 외견상 조기에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경우도 성인기에 뒤늦게 자아정체감 위기를 겪으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충분한 자아탐색을 통해 자아정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Marcia(1964)는 개인의 자아정체감을 '위기(crisis)'와 '수행(commitment)'의 두 축을 기준으로 하여 자아정체감 지위를 성취(achievement), 유예(moratorium), 유실 foreclosure), 혼미(diffusion)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입시 및 학업부담이 과중한 환경에서는 위기를 직면하고 충분한 탐색을 진행할 기회가 없이 자아정체감 확립을 수행(commitment)한 '자아정체감 유실 foreclosure)' 지위에 속한 청소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자아정체감 유실 지위에 속한 청소년들은 일견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처럼 보이나, 성인기에 뒤늦게 자아정체감 위기를 겪으며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정체감 유실 양상이 실제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높은 실업률이 청년층의 주요한 위기 요인으로 다루어지는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 사이에서도 일명 '취업증후군'이라 불리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취업증후군을 겪는 청년들은 직업 이외의 다른 일에 몰두해 심리적 위안을 얻거나, 또 다시 직장을 찾기 위해 이직을 결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2014)가 「2014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졸 신입사원 네 명 중 한 명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격적인 사회진출에 앞서 자신에 대한 성찰, 적성 및 진로탐색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했다가 다시 진로와 적성에

대한 갈등을 겪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성인기에는 직업세계 진입 및 가정구성을 위한 준비의 압박이 크기 때문에 자아정체감 탐색을 위한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처럼 성인기에 자아정체감 위기를 경험하는 것은 중대한 심리적 타격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많은 성인들이 뒤늦게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겪으며 여러 번 진로선택을 반복한다면 사회적으로도 인력활용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충분한 자아성찰 및 진로탐색 등을 토대로 안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대 우리사회에서는 대학입시 위주의 교과과정 운영, 지나친 사교육 수준, 보다 조기에 안정적인 직업세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기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자아탐색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실정이다(이미리·조성연·길은배·김민, 2014).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조기에 진로선택을 완료하는 비율이 높은 것에 반해(김영화, 2010)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는 자아정체감과 진로선택에서 뒤늦게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이 넘는 대학생들은 미래 직업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하고 있다(임연, 2004).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대학 입학이 특정 직업세계 진입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결정짓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한 이후 뒤늦게 자아정체감 위기를 통해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더라도 진로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 Ginzberg(1951)에 따르면 진로탐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는 잠정기(11~17세)에 해당하는 청소년기로서, 이 시기에는 직업관을 확립하고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며, 자신의 희망 직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기 진로결정수준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것이 성인기 초기의 진로선택 만족과 자아정체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수준은 어떠하며, 청소년기의 진로결정수준이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는 대학 만족도, 전공 만족도 등에 있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자아정체감의 변화양상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주목해보아야 한다.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많은 경우 횡단 연구를 통해 특정 시점에서 나타난 경향성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자아정체감은 장기간에 걸쳐 발달하는 것이며,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진로결정을 완료한 것처럼 보였다가 대학 진학 이후 뒤늦게 다시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청소년기부터 대학진학 이후인 성인기 초기까지의 자아정체감 변화를 종단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진로 관련 요인들이 이

러한 변화 양상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자아정체감 변화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들(Dunkel & Anthis, 2001; Phinney & Chavira, 1992)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 집단 내에서 개개인이 어떠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지 '하위집단별 궤적'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기에 비슷하게 높은 수준의 자아정체감을 보고하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사실은 '자아정체감 성취' 청소년과 '자아정체감 유실' 청소년이 혼재되어있을 수 있다. 이들이 성인기에 진입하면서는 자아정체감 확립 수준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 표본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상정하는 기존의 종단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정체감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살펴봄과 동시에, 전체 표본 내에서 변화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집단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동일집단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시기부터 대학 입학 이후인 성인기 초기에 이르는 동안 수집된 종단자료를 활용해 자아정체감의 다양한 변화양상을 포착해 하위집단별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로 청소년기의 진로결정수준과 대학 입학 후의 대학 만족도 및 전공 만족도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집단별 차이에 대한 비교분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로 청소년기의 진로결정수준, 그리고 대학 입학 후의 대학 만족도 및 전공 만족도가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에 따른 집단별 구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 자아정체감이 변화하는 다양한 패턴을 규명하고 진로선택과의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진로발달과 자아정체감 발달에 대한 학문적 고찰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기부터 초기 성인기에 이르는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에 따라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가? 구분된 집단에 따라 자아정체감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에 따라 구분된 각 집단의 청소년기 진로결정수준과 대학 입학 직후 대학 만족도 및 전공 만족도가 다른가?

[연구문제 3] 청소년기의 진로결정수준과 대학 입학 직후 대학 만족도 및 전공 만족도는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에 따른 집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자아정체감 발달과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이란 Erikson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개인의 심리적 기능, 대인관계 행동과 역할, 가치·신념에 대한 선택 및 전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 즉, 자기에 대한 인식이 고유성, 동일성, 지속성과 항상성을 토대로 형성되고 발달하는 개념이며(이순형, 1991; Erikson, 1963), 동일성과 일관성을 핵심적 요소로 포함한다. 결국, 자아정체감이란 '다양한 맥락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일체감을 유지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 및 그들과의 관계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이순형, 2010; Lerner & Steinberg, 2009), 이것은 고정된 상태라기보다 전 생애에 걸쳐 사회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 특성을 지닌다.

Erikson은 인간의 발달을 심리사회적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자아정체감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도입하였다. 확고한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해서는 전 생애에 걸쳐 각 단계에서 당면하게 되는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서봉연, 1979). 그 중에서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의 위기에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시기로 전 생애 자아정체감 발달과정에서 특히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뿌리 내린 자아정체성을 성인기로 새롭게 통합해야 하는 과업이 주어지고, 자아정체감 형성은 심리사회적 과업으로서 대다수의 사람에게 규범적 사건이 된다(Erikson, 1963). 즉,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심리사회적 유예기로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사회적 기대를 경험하고 다양한 역할을 실험해봄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나 자신의 독특한 특성을 발견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Marcia(1964)는 Erikson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자아정체감이 발달하는 과정을 '위기(crisis)'와 '수행(commitment)'의 두 축을 기준으로 하여 자아정체감 성취(achievement), 자아정체감 유예(moratorium), 자아정체감 유실 foreclosure), 자아정체감 혼미(diffusion) 네 가지 지위로 상정하였다. 자아정체감 유예나 유실로부터 자아정체

감 성취로 이동하는 것이 청소년에게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자아정체감 발달 경로이지만, 대학졸업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0~40%의 학생만이 자아정체감 성취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되었고(Waterman, Greary, & Waterman, 1974), 청소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절반 정도가 흥미와 유예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Kroger, 2003).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입시 및 학업부담이 과중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고 충분히 자아정체감을 탐색할 여유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성인기로 진입한 후에도 자아정체감 유예, 유실, 흥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경희(2002)의 연구에서 자아정체감 지위 비율이 정체감 성취는 19.8%에 불과하였고, 흥미가 60.4%로 가장 많고 유예가 12.2%, 유실이 7.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ikson과 Marcia의 이론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자아정체감 형성은 전 생애 발달 과정이며 한 시점에서의 정적인 상태뿐 아니라 생애과정 내에서의 변화과정이 지니는 의미가 크다.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은 개인내면과 사회 환경으로부터 높은 압력을 받으며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이 시기 자아정체감 발달 과정은 이후 성공적인 성인기로 안착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초기 자아정체감 형성 및 변화와 관련하여 청소년기 및 성인기 초기의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변화는 청소년기의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과도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요인들을 크게 분류해보면 개인요인, 가정 및 학교 요인, 진로발달 관련 요인 등의 범주로 나뉘볼 수 있다.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에서는 성별, 학년(양지웅, 201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소득수준(홍향현·유태명, 2008), 학교계열(배제현, 1993; 오현석·배진현·이상은·장현진, 2010)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지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연구에서는 가정 관련 변인, 학교생활 변인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살펴보았다. 가족 관련 변수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가족 건강성, 가족 기능(배경의·심은하, 2007; 허정철, 2008), 가족지지(김정남·권윤희, 2002)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학교생활 관련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만족도(곽미정·김영미, 2013), 학업성취도(신경원, 2010)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청소년기는 장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수준과 같은 진로 탐색과 관련된 변인들도 중요하게 연구되었다(오현석 외, 2010; 홍향현 · 유태명, 2008). 이 연구에서는 진로발달의 맥락에서 청소년기부터 초기 성인기에 이르는 자아정체감 발달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변수인 진로결정수준 및 대학·전공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진로결정수준

청소년기는 진로발달단계에서 초등학교시기에 해당하는 환상기에서 벗어나 잠정기에 진입하는 단계이다(Ginzberg, 1951). 즉, 청소년기는 진로결정의 잠정기로서, 자신과 진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진로선택을 위한 본격적인 탐색을 준비하며 미래진로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처럼 청소년기부터 진로에 대한 탐색이 본격화되지만, 미래 진로를 결정하였는지 여부 및 진로결정 및 미결정의 구체적 수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진로미결정'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이분법적 개념, 단일차원의 연속개념, 다차원적 개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며 발전하여 왔다(Savickas, 1995). 진로미결정을 연구한 초기 이론가인 Parsons(1967)에 따르면 진로결정수준은 결정과 미결정으로 구분된다고 보며, 이러한 관점은 진로미결정이 '미성숙'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담현장에서 치료의 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Savickas, 1995). 이후 진로미결정을 일종의 '문제'로 바라본 이분법적 구분(정애경 · 김계현 · 김동민, 2008)의 한계가 지적되었고, 진로미결정에서 진로결정 사이의 연속선이 존재한다고 보면서(Holland, Gottfredson, & Nafziger, 1973; Osipow, Carney, Winer, Yanico, & Koschier, 1976) 개인이 이 연속선상에 위치한 점을 가정한 개념이 바로 진로결정수준으로 정의되었다. 이후 진로미결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진로결정수준을 연속선상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Savickas, 1995). Slaney(1988)는 다차원적 관점이란 내담자를 동질적인 하나의 집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하위집단들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Blustein, Ellis & Devenis(1989)는 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VEC)차원과 Tendency to Foreclose(TTF) 두 가지 차원으로 진로결정수준을 다차원적으로 구분하였다. 신희경 · 김우영(2005)도 고등학생의 진로를 진로결정수준 I(미래직업결정), 진로결정수준Ⅱ-1(고교졸업 후 진학설정), 진로결정수준Ⅱ-2(고교졸업 후 취업결정)와 같이 유형을 구분한 후, 진로결정수

준 I 을 미래직업결정 여부와 정보와 확신수준 두 가지 차원으로, 진로결정수준Ⅱ-1를 희망전공 결정 여부와 정보수준 두 가지 차원으로, 진로결정수준Ⅱ-2는 구체적 직업 결정여부와 준비행동 수행여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다차원적으로 살펴보았다.

진로결정수준은 자아정체감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정보 및 확신을 가지고 적합한 진로를 결정한 사람은 높은 수준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지만, 진로에 대한 정보 및 확신이 부족하며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은 사회규범이나 부모가 전달하는 기대 및 가치 속에서 자신에 대한 불신 및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Korman, 1967). 진로결정수준과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를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진로결정수준과 자아정체감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서봉연, 1979; Fuqua & Hartman, 1983; Munley, 1977).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들과 진로결정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 이송이(2014)는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인 주체성이 진로의사결정유형 중 합리적 유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수용성·미래확신성·주도성이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고미나·박재황(2008)은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의 세부 하위변인들과 진로결정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정체감의 모든 하위변인의 수준에 따라 진로결정에 차이가 있으며, 자아정체감의 각 하위변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도 높게 나타나 두 변수 간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길(2006)은 대학생의 진로결정의 시기와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순서로 진로결정시기가 이룰수록 진로정체감이 높다고 하였다.

진로결정수준은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한 확신의 정도와 정보수준을 의미하는 개념(신희경·김우영, 2005)으로서 청소년의 진로발달 수준 평가에 유용하며,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진로결정수준과 자아정체감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본 종단적 연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특히 종단적 측면에서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변화 경로와 청소년기 진로결정수준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진로결정시기가 이룰수록 대학시기 진로정체감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이상길, 2006)를 고려해, 특히 중학교 시기의 진로결정수준을 확인하고 종단적인 자아정체감 변화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대학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

대학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진학한 대학 및 전공에 관한 인식 및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충족감 혹은 만족감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의미한다. 대학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생활만족 및 적응(윤지영, 2014; 조인영, 2014; 주영주·한상윤, 2015), 진로성숙도(양명희·박명지·김희정, 2010; 정민주, 2014)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서 대학 진학 후 적응적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의 주요한 진로목표가 일차적으로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적 교육맥락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대학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본격적인 직업선택 이전에, 청소년기를 거쳐 진행된 자신의 진로탐색 및 결정에 대한 일차적이며 시험적인 자기평가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전공 만족도에 대해서는 특정 학과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왔다. 국내에서는 각 전공별로 체육계열 전공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전공 만족도, 진로결정효능감의 구조적 관계(김우경·김웅준, 2012), 보건관련 전공학생들의 전공 만족도와 향후 진로선택의 관련성(이여진·신준호, 2012), 항공서비스 전공의 전공 만족도가 취업불안 및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정민주, 2014), 간호학 전공학생의 임상 실습 스트레스와 전공 만족도(조인영, 2104), 무용전공 대학생의 전공 만족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조미수·노정식, 2014), 비서학전공 전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윤지영, 2014)를 살펴본 연구들이 존재한다. 특정전공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전공 만족도는 대학 생활적응, 취업행동, 진로태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전공 만족도가 자아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도 존재하는데, 이미라·박분희(2014)는 대학생의 전공 만족도가 취업준비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홍미성(2013)은 무용전공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전공 만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정점숙, 정미조와 유일영(2014)은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이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은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과 같은 자아 관련 변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대학 진학 이후 자아정체감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공 만족도와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학 만족도와 관련해 김계현·하혜숙(2000)은 대학생의 학과만족 요인에 관해 연구하였고, 그 결과 학교의 사회적 명성 및 인식 만족이 대학 및 전공에 대한 만족에 제1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것은 기존에 주목되었던 전공 만족도뿐 아니라 대학 만족도 역시 연관변수로 포함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대학 만족도 및 전공 만족도는 대학생활 적응을 포함한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상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서, 특히 대학 입학 이후의 자신에 대한 평가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직업능력과 밀접한 관련 학과의 진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정했기에, 이들 대학생의 전공 만족도는 대학생 일반의 전공 만족도를 대표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대학 만족도에 대해서도 사회적 명성 등의 외적 요인과의 연관성 외에 자아정체감이라는 내적 요인과의 연관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와 성인초기에 걸친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대학 만족도와 전공 만족도를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분석자료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는 2004년 중학교 3학년 학생 2,000명과 일반계/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000명을 패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매년 1회 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 현재 10회 조사가 완료된 질 높은 종단자료이다.

이 연구는 ‘중학교 3학년 코호트 중 4년제 대학 진학자’를 연구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분석대상으로는 2004년(1차년도)에 중학교 3학년으로 패널조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2008년(5차년도) 패널조사 당시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라고 응답한 학생’을 선정하였다. 중학교 3학년 패널을 선정한 이유는 고등학교 3학년 패널에 비해 청소년기를 보다 장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더불어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 사이의 이행과 변화양상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4년제 진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3년제 전문대학생의 경우 대학에서 직업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을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자아정체감 변화와 대학 만족도, 전공 만족도 등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이 4년제 대학생과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문대학생은 재학 연한이 짧아 직업세계로 진입하는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이들을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조사 후반부에 대학생과 직업인이 혼재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5차년도)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4년제 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총 747명이며, 이 중 남학생은 367명, 여학생은 380명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자	358(49.1)
		여자	371(50.9)
		전체	729(100)
교급		일반계	657(90.4)
		전문계	70(9.6)
		전체	727(100)
보호자 학력	남성보호자	중졸 이하	78(10.9)
		고졸	371(51.7)
		대졸	240(33.5)
		대학원 이상	28(3.9)
		전체	717(100)
	여성보호자	중졸 이하	130(17.8)
		고졸	470(64.3)
		대졸	116(15.9)
		대학원 이상	15(2.1)
		전체	731(100)
1차년도 가구 월 소득		200만원 미만	213(29.0)
		200만원~400만원	386(52.6)
		400만원 이상	135(18.4)
		전체	734(100)

2. 측정변인에 대한 정의와 자료처리

가. 자아정체감

이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학생설문지 중 ‘일반적 특성’에서 자아정체감을 측정하는 6문항(〈표 2〉)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청소년의 자기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문항으로, 다른 연구(김성남·최수정, 2012)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6개 문항이 청소년의 자기인식과 평가, 자아탐색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아정체감’으로 명명하였다. 1차년도인 2004년 전체 패널의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765로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자아정체감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도출을 위해 2004년(1차년도, 중3), 2007년(4차년도, 고3), 2010년(7차년도, 대3), 2013년(10차년도, 25세) 자료를 활용하였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각각 진로발달의 핵심적 시기이자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이기에 선택했고, 이후 3년 간격을 두고 7차년도와 10차년도를 선정하였다.

<표 2> 자아정체감 측정 문항

5점 Likert 척도

1)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알고 있다.	4)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무리 없이 결정한다.
2)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	5) 내가 계획한 것을 잘 할 수 있다.
3)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6)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아정체감의 종단적 변화 분석에는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에 조사된 자아정체감 6문항의 평균 점수를 각각 계산해 활용하였다. 각 연도에서의 자아정체감 수준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체로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표 3> 연도별 자아정체감 기술통계 분석

연도(차수)	N	M(SD)	왜도(SE)	첨도(SE)
2004(1차)	747명	3.32(.57)	.09(.89)	.20(.18)
2007(4차)	729명	3.56(.53)	-.18(.91)	.51(.18)
2010(7차)	455명	3.66(.62)	-.42(.11)	.99(.23)
2013(10차)	658명	3.73(.60)	-.11(.10)	.49(.19)

나.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에 대해서는 2004년도(1차년도, 중학교 3학년) 자료를 사용하였다.¹⁾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 측정을 위해, '미래직업 결정여부'와 '결정 직업에 대한 확신 및 정보 수준'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을 정의한 신희경·김우영(2005)의 관련 변수를 연구목적에 맞게 변형, 위계적으로 구성된 3수준으로 수정해 사용하였다.

<표 4> 진로결정수준의 정의

수준		정의	변수의 조작
진로 결정 수준	수준3	미래직업 결정, 정보와 확신 수준이 모두 높음	(i-1)미래 직업 결정=예 (i-2)미래 직업에 대한 정보 수준=상위 50% (ii-1)결정한 직업을 평생 직업으로 생각=예 (ii-2)결정한 직업을 가질 가능성=상위50%
	수준2	미래직업은 결정, 정보와 확신수준은 혼재되어 있음	수준1, 3을 제외한 모든 응답
	수준1	미래직업 미결정	미래 직업 결정=아니오

진로결정수준 구분을 위해 변수들을 조작하는 방식은 신희경·김우영(2005)의 연구와 동일하다. 먼저 '미래 직업 결정 여부'와 '결정한 직업을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의 응답은 '예',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미래 직업에 대한 정보 수준'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 2 문항의 표준화된 점수를 구한 후 평균점수를 계산하고, 상위 50%와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결정한 직업을 가질 가능성'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1문항에 대해 표준화된 점수를 계산하고 상위 50%와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3가지 진로결정수준으로 구분된 연구대상의 분포는 <표 5>와 같다.

1) 중학교 3학년은 진로발달의 '잠정기'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탐색과 결정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하였다. 통념적으로 고등학교 시기 역시 중요하나 패널 설문지의 구성상 중학교와 고등학교 설문지의 문항 구성이 서로 달라,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결정수준은 함께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기 보다 중학교시기에 진로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성인기 진로정체감이 높다는 선행연구(이상길, 2006)를 감안하면, 이처럼 중학교 시기의 진로결정수준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표 5> 중학교 3학년 진로결정수준별 빈도

단위: 명(%)

	진로결정수준			전체
	수준3	수준2	수준1	
빈도	277(32.7)	224(30.1)	277(37.2)	745(100)

다. 대학 만족도 및 전공 만족도

대학 만족도 및 전공 만족도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자들이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한 7차년도(2008년) 자료를 활용했다. '자신이 선택한 대학에 만족합니까?' 와 '자신이 선택한 학과(계열, 학부, 전공)에 만족합니까?'라는 두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 응답을 이용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6>과 같다. 대체로 '보통이다' 와 '그렇다' 사이 중간 정도의 응답을 보이며,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

<표 6> 선택 대학 만족도와 선택 전공 만족도 기술통계 결과

	N	M(SD)	왜도(SE)	첨도(SE)
선택 대학 만족도	745명	3.38(.918)	-.49(.09)	.06(.18)
선택 전공 만족도	745명	3.57(.913)	-.65(.09)	.28(.18)

3. 분석방법

가.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에 따른 잠재집단 도출

자아정체감의 변화 궤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찰대상중심적(person-centered)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기법은 한 집단 내에서 차별화된 발달 궤적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며, Nagin(1999)의 '준모수적 집단중심 접근방법(a 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이 대표적인 방법이다(정익중, 2007). 이 연구에서는 종단적으로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 대상들을 묶는 Nagin의 방법을 적용해,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의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에 따라 하나의 집단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잠재집단을 도출하였다.

분석을 위해 SAS 프로그램의 매크로인 PROC TRAJ을 사용하였다(Jones, Nagin, & Roeder, 2001).²⁾ 이 방법은 종단적인 변화 궤적에 따라 잠재집단을 분류할 수

있으며, 결측치를 포함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만 응답치가 없는 표본을 생략하지 않고도 많은 표본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Nagin, 1999). 일반적으로 잠재집단 도출을 위한 모델은 자료의 특성에 따라 CNORM(censored normal)모델, ZIP(zero-inflated Poisson)모델, LOGIC(logistic)모델로 나뉜다. 이 연구에서 잠재집단을 도출하고자 하는 변수인 자아정체감은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되었고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CNORM 모델을 적용하였다(Jones, Nagin, & Roeder, 2001).

준모수적 집단중심 접근방법에서 측정시점에서의 변수값을 구하는 다항식은 3차식까지 가능하며, 다음과 같다(Jones, Nagin, & Roeder, 2001).

$$\mu_{ijk} = \beta_{ak} + t_{ij}\beta_{1k} + t_{ij}^2\beta_{2k} + \dots + w_{ij}\delta_{k^n}$$

이때 μ_{ijk} 는 잠재집단 k 에 속한 개인 i 의 t 시점에서 나타난 변수값이다. 위의 식에서 계수는 해당 집단 변화 궤적의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적합한 모형인지 판단하기 위한 값으로는 BIC 값을 사용하며, 식은 다음과 같다(Nagin, 1999).

$$BIC = \log(L) - 0.5 \log(n)^* (k)$$

L 은 모델의 최대우도값이고, n 은 표본의 크기, k 는 파라미터의 개수(집단의 개수)를 의미한다(Nagin, 1999). BIC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페널티를 적용하는 값으로서, 간결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값이다. BIC의 절댓값이 작을수록 모델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개 집단부터 분석하여 집단 수가 늘어감에 따라 BIC 값이 변화하는 양상을 관찰해 가장 적합한 집단 수를 결정하였다. 또한 결정된 각 집단의 변화 궤적에 가장 적합한 차수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집단에 대해 3차식부터 1차식까지 적용해 가면서 가장 유의미한 차수를 결정하였다.

잠재집단 모형이 결정되면, 전체 표본 내의 각 개인들이 어느 집단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은지 검토하여 소속 집단을 결정하게 된다. PROC TRAJ는 아래와 같은 식을 통해 각 개인이 각 집단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며, 그 결과에 따라 소속 집단을 결정해 결과를 제공한다. 잠재집단 분석을 위해서는 SAS 9.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2) SAS 매크로는 <http://www.andrew.cmu.edu/user/bjones/index.htm> 에서 제공하고 있다.

$$\Pr(Y_i = y_i | C_i = k, W_i = w_i) = \prod_{y_{ij} = \min} \Phi\left(\frac{\text{Min} - \mu_{ijk}}{\sigma}\right) \prod_{\min < y_{ij} < \text{Max}} \frac{1}{\sigma} \phi\left(1 - \Phi\left(\frac{\text{Max} - \mu_{ijk}}{\sigma}\right)\right)$$

나. 진로결정수준과 대학 및 전공 만족도가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 집단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PROC TRAJ을 통해 도출된 자아정체감 잠재집단을 결정하는 데 청소년기의 진로 결정수준과 대학 만족도 및 전공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표 분석을 이용한 카이제곱(χ^2) 검정,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한 F통계량 검정과 사후검정(Scheffé),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에 따른 잠재집단 구분

이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에 따른 잠재집단을 도출하기 위해 1개 집단부터 차례로 집단 수를 늘려가면서 3차식으로 모형을 추정, 비교하였다. BIC 값은 집단 수가 5개가 될 때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집단 수가 6개가 되면서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표 7> 참조).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에 따라 5개의 잠재집단으로 구분하는 모형을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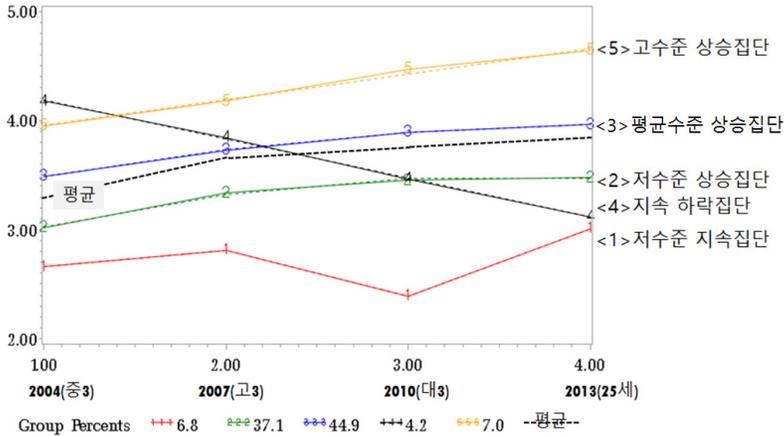
<표 7> 잠재집단 모형에 따른 적합도 검정

집단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BIC	-2270.49	-2152.93	-2127.04	-2126.92	-2125.11	-2132.46

5개 집단 별로 적절한 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각 집단별로 3차(cubic), 2차(quadratic), 1차(linear), 절편(intercept) 함수를 순서대로 적용하여 적절한 차수를 선택하였다. 그 결과, 집단 <1>은 3차, 집단 <2>와 <3>은 2차, 집단 <4>와 <5>는 1차 함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 때 BIC 값은 -2106.11이었다. 각 집단에 적합한 함수를 적용하여 변화 궤적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³⁾ 표본 전체의 자아정체감 평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각 잠재집단별 구체적 변화 궤적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존재했다. 먼저 집단 <1>은 전체의 6.8%에 해당되며 지속적으로 낮은 자아정체감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저수준 지속집단<1>”로 명명하였다. 집단 <2>는 전체의 37.1%에 해당되며 집단 <1>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아정체감 수준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저수준 상승집단<2>”로 명명하였다. 집단 <3>은 전체의 44.9%에 해당되며 평균점수와 가장 비슷한 수준과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평균수준 상승집단<3>”이라 명명하였다. 집단 <4>는 전체 표본의 4.2%에 해당되며 자아정체감 수준이 가장 높았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마지막에는 가장 낮은 집단 <1>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므로 “지속 하락집단<4>”로 명명하였다. 집단 <5>는 전체의 7.0%에 해당되며 집단 <4>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자아정체감 수준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고수준 상승집단<5>”로 명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자아정체감 변화 양상이 확연하게 차이 나는 저수준 지속집단<1>, 지속 하락집단<4>, 고수준 상승집단<5>에 주목하여, 이러한 집단 구분에 진로결정수준과 대학 및 전공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대상 전체의 연도별 자아정체감 평균을 나타내는 선을 추가하였다.

[그림 1]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에 따른 5개 잠재집단



2.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 집단에 따른 진로결정수준과 대학 및 전공 만족도

가.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 집단에 따른 중학교 3학년 진로결정수준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 집단에 따라 중학교 3학년 때 응답한 진로결정수준이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 결과,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 집단에 따라 중학교 3학년 때 응답한 진로결정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chi^2 = 83.833$, $p < .001$). 표준화잔차의 절댓값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정체감이 지속적으로 높은 '고수준 상승 집단<5>'에서의 진로결정수준을 살펴보면 [수준3]⁴⁾에 해당하는 구성원 비율이 가장 높았다(74.4%). 중학교 3학년 때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가장 높았던 '지속 하락집단<4>' 내에서도 [수준3]에 해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었으나(52%), '고수준 상승 집단<5>' 보다는 낮았다. 한편, 자아정체감 수준이 계속 낮은 '저수준 지속집단<1>' 과 '저수준 상승집단<2>'의 구성원 중 각각 64.3%, 44.9%이 진로결정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두 집단에서 모두 [수준1]의 비율이 가장 높음). 그리고 자아

4) '미래직업 결정수준', 그리고 '미래직업 정보 및 확신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

정체감 변화 궤적이 전체 평균과 비슷했던 ‘평균수준 상승집단<3>’에서는 진로결정 [수준 1], [수준 2], [수준 3]이 각각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진로결정과 자아정체감이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이송이, 2014)와 같은 맥락에 있기는 하나, 중학교 3학년 때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가장 높았던 지속 하락집단<4>가 고수준 상승집단<5>보다 진로결정 [수준 3]에 해당되는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보면, 종단적 측면에서의 변화 궤적에 따른 집단별 구분이 청소년 집단 내에서의 특징과 차이가 보다 세밀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표 8>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 집단에 따른 중학교 3학년 진로결정수준 단위: 명(%)

	중학교 3학년 진로결정수준				χ^2	
	수준 <3>	수준 <2>	수준 <1>	전체		
자아 정체감 변화 궤적 집단	고수준 상승집단<5> (표준화잔차)	32 (74.4) 4.8	6 (14.0) -1.9	5 (11.6) -2.7	43 (100)	83.833***
	지속 하락집단<4> (표준화잔차)	13 (52.0) 1.7	8 (32.0) .2	4 (16.0) -1.7	25 (100)	
	평균수준 상승집단<3> (표준화잔차)	138 (38.2) 1.8	106 (29.4) -.3	117 (32.4) -1.5	361 (100)	
	저수준 상승집단<2> (표준화잔차)	58 (21.0) -3.4	94 (34.1) 1.1	124 (44.9) 2.1	276 (100)	
	저수준 지속집단<1> (표준화잔차)	3 (7.1) -2.9	12 (28.6) -.2	27 (64.3) 2.9	42 (100)	
	전체	244 (32.7)	226 (30.3)	277 (37.1)	747 (100)	

***p<.001

나.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 집단에 따른 대학교 1학년 대학 및 전공 만족도

먼저,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에 따른 집단 사이에 대학교 1학년 때(2007년 4차년도) 응답한 대학 만족도 및 전공 만족도가 서로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통한

F검정을 실시하였다(〈표 9〉 참조). 분석 결과, 대학 만족도($F=5.791, p<.001$) 및 전공 만족도($F=10.824, p<.001$)에 있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é 사후검정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고수준 상승집단(5)'는 대학 만족도($M=3.79, SD=1.04$)가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지속 하락집단(4)'($M=3.16, SD=1.07$) 및 '저수준 지속집단(1)'($M=3, SD=.99$)과 유의미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수준 상승집단(5)'의 전공 만족도($M=4.05, SD=.98$)는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정체감 수준이 계속해서 가장 낮은 '저수준 지속집단(1)'의 전공 만족도($M=2.9, SD=1.1$)는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 하락집단(4)'는 대학 만족도와 전공 만족도 모두 낮은 수준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종합해 보면, 꾸준히 높은 자아정체감 수준을 나타내며 상승해 가는 '고수준 상승집단(5)'는 대학 입학 직후 자신이 선택한 대학교 및 전공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는 반면, 계속해서 낮은 수준의 자아정체감 수준을 나타내는 '저수준 지속집단(1)'은 대학 입학 직후 자신이 선택한 대학교 및 전공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중학교 3학년 때는 자아정체감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속적으로 계속 자아정체감이 하락하는 '지속 하락집단(4)'는 대학 입학 직후 자신이 선택한 대학교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다. 이 역시 기존 연구에서 주목한 특정 시점에서뿐 아니라, 이 연구에서 초점을 둔 종단적인 자아정체감 변화 양상 및 궤적 또한 대학 만족도 및 전공 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9>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 집단에 따른 대학 및 전공 만족도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 집단		N	M	SD	F	Scheffé
대학 만족도	고수준 상승집단(5)	43	3.79	1.04	5.791***	a
	지속 하락집단(4)	25	3.16	1.07		b
	평균수준 상승집단(3)	359	3.46	.94		a b
	저수준 상승집단(2)	276	3.29	.82		a b
	저수준 지속집단(1)	42	3	.99		b
전체		745	3.38	.92		
전공 만족도	고수준 상승집단(5)	43	4.05	.98	10.824***	a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 집단	N	M	SD	F	Scheffé
지속 하락집단<4>	25	3.32	1.15		b c
평균수준 상승집단<3>	359	3.67	.88		a b
저수준 상승집단<2>	276	3.51	.82		b
저수준 지속집단<1>	42	2.9	1.1		c
전체	745	3.57	.91		

1) N-사례수; M-평균; SD-표준편차

2) *** $p < .001$

3) a > b > c 순서로 대학 만족도, 전공 만족도 값이 클수록 의미함.

3. 진로결정수준과 대학 및 전공 만족도가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 집단 결정에 미치는 영향

앞서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에 따른 집단별(A)로 '중학교 3학년 때의 진로결정수준(B)'과 '대학교 1학년 때의 대학 만족도 및 전공 만족도(C)'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A의 차이가 B 및 C의 차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고, 유의미한 집단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제는 연관성을 넘어 B 및 C가 A의 차이를 만드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즉 B 및 C를 A에 대한 일종의 예측변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학교 3학년 때의 진로결정수준과 대학교 1학년 때의 대학 만족도 및 전공 만족도는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에 따른 집단의 결정과 구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수준 상승집단<5>'에 비해 '지속 하락집단<4>'에 속할 승산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진로결정 [수준3]보다는 [수준2]에 속할수록($p < .001$), 그리고 전공 만족도가 낮을수록($p < .05$) '지속 하락집단<4>'에 속할 승산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3학년 때 진로를 결정하기는 했으나 그에 대한 정보나 확신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수준2])일수록, 높았던 자아정체감 수준이 계속 유지되지 못한 채 꾸준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대학교 1학년 때의 전공 만족도가 낮은 것 또한 성인

기 초반인 20대 전반에 걸쳐 자아정체감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중학교 3학년 때 '지속 하락집단 <4>'의 자아정체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의 실체는 '정체감 확립'이 아닌 '정체감 유실'일 가능성이 크다.

둘째, '고수준 상승집단<5>'에 비해 '평균수준 상승집단<3>'에 속할 승산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진로결정 [수준3]보다는 [수준1]($p<.01$)이나 [수준2]($p<.01$)에 속할수록, 그리고 전공 만족도가 낮을수록($p<.1$) '평균수준 상승집단<3>'에 속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준 상승집단<3>'의 자아정체감 수준값 및 변화 궤적이 분석대상 전체집단의 평균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대해석을 하면, 평균 수준의 자아정체감을 보이는 일반집단과 차별화되는 높은 수준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확신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적 순서를 고려할 때 청소년기의 진로결정수준은 이후 대학교 입학과 관련한 전공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토대로 직간접적인 자아정체감 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고수준 상승집단<5>'에 비해 '저수준 상승집단<2>'에 속할 승산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평균수준 상승집단<3>'과 마찬가지로 진로결정 [수준3]보다는 [수준1]($p<.001$) 또는 [수준2]($p<.001$)에 속할수록, 그리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p<.05$) '저수준 상승집단<2>'에 속할 승산이 높았다. '저수준 상승집단<2>'가 '고수준 상승집단<5>' 및 '평균수준 상승집단<3>'과 자아정체감 수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변화 궤적의 양상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행연구(이미라 · 박분희, 2014; 홍미성, 2013)에서 밝힌 것처럼 진로결정수준과 전공 만족도가 전반적인 자아정체감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고수준 상승집단<5>'에 비해 '저수준 지속집단<1>'에 속할 승산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평균수준 상승집단<3>' 및 '저수준 상승집단<2>'와 마찬가지로 진로결정 [수준3]보다는 [수준1]($p<.001$) 또는 [수준2]($p<.001$)에 해당될수록, 그리고 전공 만족도가 낮을수록($p<.001$) '저수준 지속집단<1>'에 속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수준 상승집단<2>'와 '평균수준 상승집단<3>'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회귀계수(B)의 절댓값이 크게 나타나, 두 독립변수(진로결정수준, 전공 만족도)의 영향력이 다른 두 집단(집단<2>, 집단<3>)에 비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저수준 지속집단<1>' 유형에 해당하는 구성원에 대해 보다 이른 시

기에, 보다 적극적인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관련변수와 각 집단별 차이에 관한 연관성 분석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대학 만족도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예측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적 측면을 감안한다면 보다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진로탐색과 진로결정 및 확신, 그리고 이것과 연계된 전공 선택의 문제가 대학 선택의 문제보다 더 의미 있는 영향력을 자아정체감의 변화에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면 중학교 3학년 때의 진로결정수준,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의 전공 만족도가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 집단을 결정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표 10> 진로결정수준과 대학 및 전공 만족도가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 집단 결정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Wald	Exp(B)
지속 하락집단<4>	절편	3.28**	1.26	6.85	
	진로결정수준 <1>	.58	.75	.59	1.78
	진로결정수준 <2>	1.09†	.64	2.88	2.96
	선택 대학 만족도	-.38	.34	1.26	.26
	선택 전공 만족도	-.75*	.36	4.41	.47
평균수준 상승집단<3>	절편	3.93***	.99	15.90	
	진로결정수준 <1>	1.62**	.50	10.57	5.07
	진로결정수준 <2>	1.35**	.47	8.35	3.84
	선택 대학 만족도	-.23	.23	.97	.80
	선택 전공 만족도	-.42†	.26	2.73	.66
저수준 상승집단<2>	절편	3.92***	1.01	15.13	
	진로결정수준 <1>	2.54***	.51	24.72	12.62
	진로결정수준 <2>	2.09***	.48	19.02	8.09
	선택 대학 만족도	-.38	.24	2.51	.69
	선택 전공 만족도	-.52*	.26	3.89	.60
저수준 지속집단<1>	절편	2.89*	1.25	5.35	
	진로결정수준 <1>	3.91***	.78	24.92	50.01
	진로결정수준 <2>	2.87***	.79	13.10	17.69
	선택 대학 만족도	-.26	.31	.66	.78
	선택 전공 만족도	-1.21***	.33	13.67	.30
χ^2		119.99***			
Cox & Snell R^2		.149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Wald	Exp(B)
Negelkerke R^2		.165			
-2 Log L		417.514			

1)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 집단의 참조범주는 '고수준 상승집단 (5)'

2) 진로결정수준의 참조범주는 수준 [3]

3) *** $p < .001$, ** $p < .01$, * $p < .05$, † $p < .1$

IV. 논의 및 제언

자아정체감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이해를 통해 타인 및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근본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많은 연구에서 언급하듯이, 자아정체감은 생애발달의 과정 전반에 걸쳐 형성·변화하는 것이므로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자아정체감 확립은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으로서, 이 시기의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은 이후의 생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청소년기는 성인기를 준비하는 시기로서 진로발달과 관련해 스스로의 적성과 흥미를 충분히 탐색하고 필요한 진로정보 및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기 진로결정의 문제는 대학 진학과 관련한 전공 선택 및 자아정체감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자아정체감의 문제를 종단적 측면에서 보다 세분화해 바라보고, 청소년기의 진로결정수준과 성인기 초기의 대학 및 전공 만족도와 연관시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한국교육고용패널의 중학교 3학년 코호트 자료를 활용해 자아정체감의 수준 및 변화양상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 구분과 집단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16세(중3, 1차년도)부터 25세(10차년도)까지의 자아정체감 수준 및 변화 궤적에 따라 5개의 잠재집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교차분석과 일원분산분석, 사후검정(Scheffé)을 통해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에 따른 5개 집단 간 '청소년기(중3) 진로결정수준' 과 '대학 입학 직후(대1) 대학 만족도 및 전공 만족도' 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청소년기 진로결정수준'과 '대학 입학 직후 대학 만족도 및 전공 만족도'가 실제로 예측변수로서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에 따른 집단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항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0대 중반 청소년기부터 20대 중반 성인기 초기까지 자아정체감의 수준 및 변화 궤적에 따른 잠재집단은 크게 다섯 개로 나뉠 수 있다. 다섯 개 집단은 ‘저수준 지속 집단<1>’, ‘저수준 상승집단<2>’, ‘평균수준 상승집단<3>’, ‘지속 하락집단<4>’, ‘고수준 상승집단<5>’이다. 이중 저수준 상승집단<2>, 평균수준 상승집단<3>, 고수준 상승집단<5>의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은 청소년기 동안 자아정체감 수준이 상승하며 안정화된다는 연구(서봉연, 1975)와 자아정체감을 높고 낮은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 연구(이보배, 2012)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두 유형의 집단이 이 연구에서는 발견되었는데, 청소년기부터 초기 성인기로 이행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자아정체감을 유지하는 ‘저수준 지속집단<1>’,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오히려 가장 높은 자아정체감 수준을 보였지만 계속해서 하락해가는 ‘지속 하락집단<4>’가 그것이다. 실질적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유형의 청소년이 이 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지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 개입과 중재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자아정체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집단 간에는 청소년기의 진로결정수준, 대학 입학 직후의 대학 만족도, 대학 입학 직후의 전공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과 관련해서는 ‘고수준 상승집단<5>’, ‘지속 하락집단<4>’, ‘평균수준 상승집단<3>’ 내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3]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저수준 지속집단<1>’, ‘저수준 상승집단<2>’에서는 [수준1]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것은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고미나·박재황, 2008; 이송이, 2014)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다음으로 특히 ‘고수준 상승집단<5>’와 다른 집단들 사이에는 대학 만족도와 전공 만족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 때 대학 만족도와 전공 만족도의 집단별 차이에서는 다소 상이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고수준 상승집단<5>’를 기준으로 다른 집단과의 차이점을 비교할 때 대학 만족도보다는 전공 만족도에 따른 집단 차이가 보다 뚜렷하고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셋째, 예측요인으로서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진로결정수준’과 ‘대학 입학 직후 전공만족도’는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에 따른 집단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학 입학 직후 대학 만족도’는 그렇지 않았다. 앞선 결과와 연관시켜 볼 때, 최소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아정체감의 변화’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학 만족도 보다는 전공 만족도가 청소년기의 진로결정수준과 함께 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보

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학 만족도와 전공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의 강도 및 경로를 비교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이 연구에서 발견한 '지속 하락집단<4>'는 외견상 청소년기의 진로결정수준과 자아정체감 수준 모두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실 있는 진로탐색과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의 '자아정체감 유실'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진학 후의 성적 등 외부요인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진로문제와 자아정체감 문제 모두 보다 쉽게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게 본다면 단순히 특정 시점에서의 자아정체감 수준이나 진로결정수준을 정량적 수치로 측정하는 것 외에도 외견상 나타난 수준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면밀히 드러내 줄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저수준 지속집단<1>'과 관련해서는 청소년기의 진로결정수준 및 대학 입학 직후 전공 만족도의 영향력이 다른 집단들에서보다 크게 나타난 바, 이 유형의 집단구성원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개입은 오히려 다른 집단에서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정책적 측면에서 특히 중고등학교 교과운영에서 진로탐색을 강화하고 다양한 직간접 체험 기회를 보다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청소년기의 자아성찰과 진로탐색을 내실화하고, 그 효과가 대학 입학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지속 하락집단<4>'에서와 같이 초기 청소년기에 외견상 높아 보이던 진로결정수준 및 자아정체감 수준이 대학 진학 이후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진로지도와 탐색기회 제공의 궁극적 초점을 10대 말~20대 초의 '대학 진학 및 전공선택'을 넘어 전 인생에 걸친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으로 옮기는 것이 시급하다.

이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패널자료 상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 집단을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중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때의 진로 관련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는데, 청소년들이 진로선택과 진학문제를 보다 시급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 관련 변수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과 발굴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수준을 결정짓는 변수로서 진로관련 변수만을 고려하였는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거론되어 왔던 성별, 학년, 학교계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족관계, 학업성취도 등의 다양한 변인들을 함께 고려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다 구체적인 정책 지원 방안의 마련을 위해서는 '고수준 증가집단<5>', '저수준 지속집단<1>', '지속 하락집단<4>'에 속하는 청소년의 특성과 중재요인을 면밀히 파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미나·박재황(2008).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 관계분석』, 『진로교육연구』, 제21권 제3호, 69~85쪽, 한국진로교육학회.
- 곽미정·김영미(2013).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49~57쪽,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김계현·하혜숙(2000). 『대학생의 학과(학부) 만족의 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제1권 제1호, 7~20쪽, 한국상담학회.
- 김성남·최수정(2012). 『전문대학생의 중·고등학교 시기 진학·전공 결정에 관한 분석』, 『직업교육연구』, 제31권 제2호, 339~356쪽, 한국직업교육학회.
- 김영화(2010).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대학생의 진로결정 문제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우경·김응준(2012). 『체육계열 전공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진로결정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17권 제2호, 65~77쪽, 한국체육교육학회.
- 김정남·권윤희(2002).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3권 제1호, 124~136쪽, 지역사회간호학회.
- 김태구·지봉구·이계희(2011). 『관광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이 학과몰입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2권 제2호, 665~674쪽, 한국산학기술학회.
- 박장희·정옥분(2002). 『복합순환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과 청년기 자아정체감발달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10호, 대한가정학회.
- 배경의·김은하(2007).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건강성, 가족 기능, 자아정체감과 우울과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제13권 제3호, 357~366쪽, 아동간호학회.
- 배제현(1993). 『산업체고교와 인문계고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비교』, 『청소년학연구』, 제1권 제1호, 77~91쪽, 한국청소년학회.

- 서경희(2002).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 지위와 진로결정과의 관계』, 『청소년행동연구』, 제7권, 1~15쪽, 청소년문제연구소.
- 서봉연(1979). 『한국과 서독 청소년의 identity 발달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연구』, 제2권, 114~138쪽,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신경원(2010).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신희경·김우영(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결정 동기에 관한 연구: 개인, 가정, 학교의 역할』,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제8권 제2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양명희·박명지·김희정(2010). 『대학생의 전공흥미일치도, 직업흥미 수준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제29권 제2호, 137~156쪽, 한국직업교육학회.
- 양지웅(2014). 『청소년 자아정체감 지위의 성별 간 및 학년 간 비교』, 『교육문화연구』, 제20권 제2호, 83~110쪽,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 오현석·배진현·이상은·장현진(2010). 『고등학교생의 진로결정 수준 비교 연구』, 『직업교육연구』, 제29권 제2호, 245~265쪽, 한국직업교육학회.
- 윤지영(2014). 『비서학 전공 전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직업가치관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비서학논총』, 제23권 제2호, 111~132쪽, 한국비서학회.
- 이미라·박분희(2014).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준비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1권 제4호, 77~93쪽, 미래청소년학회.
- 이미리·조성연·길은배·김민(2014). 『청소년학개론』, 학지사.
- 이보배(2012).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임언(2004). 『생애진로개발지원의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여진·신준호(2012). 『일개지역 전문대학 보건행정과 학생들의 전공 만족과 향후 진로선택의 상관성』,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호, 725~733쪽, 한국산학기술학회.
- 이상길(2006).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인구통계적 변인 및 진로결정의 현재, 미래, 과거적 변인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제19권 제1호, 141~154쪽, 한국진로교육학회.

- 이순형(1991). 『청소년의 민족정체감의 개념화와 측정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4호, 139~152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순형(2010). 『한국인의 자아정체 형성과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조미수·노정식(2014). 『무용전공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전공만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제31권 제1호, 53~66쪽, 한국무용과학회.
- 조인영(2014).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상관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5호, 2937~2945쪽, 한국산학기술학회.
- 주영주·한상운(2015). 『대졸 청년층의 대학생활 만족도 및 첫 직장만족도 관련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교육종합연구』, 제13권 제1호, 193~212쪽, 교육종합연구소.
- 정민주(2014). 『4년제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가 취업불안 및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항공경영학회지』, 제12권 제1호, 81~104쪽, 한국항공경영학회.
- 정애경·김계현·김동민(2008). 『진로미결정 및 관련변인에 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제9권 제2호, 551~564쪽, 한국상담학회.
- 정옥분(2008). 『전생애발달의 이론』, 학지사.
- 정익중(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체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3호, 127~166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점숙·정미조·유일영(2014).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0권 제1호, 27~36쪽, 한국간호교육학회.
- 한국경영자총협회(2014). 『2014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 허정철(2008).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10권 제3호, 123~147쪽,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홍미성(2013). 『무용전공남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자아존중감, 학과적응, 진로장애 및 전공만족과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제30권 제3호, 1~16쪽, 한국무용과학회.
- 홍향연·유태명(2008).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제20권 제3호, 49~64쪽, 한국가정교육학회.
- Blustein, David L., Michael V. Ellis, and Luanna E. Devenis.(1989).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wo-dimensional model of the commitment to career

- choices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35 No.3, pp.342~378.
- Dunkel, C. S., & Anthis, K. S.(2001). “The role of possible selves in identity formation :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Vol.24 No.6, pp.765~776.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s)*, NY: WW.
- Fuqua, D. R., & Hartman, B. W.(1983). “Differenti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Vol.62 No.1, pp.27~29.
- Ginz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 Herma, J. L.(1951). *Occupational choice*. NY: MSS Educational Publishing Company.
- Holland, J. L., Gottfredson, G. D., & Nafziger, D. H.(1973). *A diagnostic scheme for specifying vocational assistance*, Research Report No. 164,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Center for Social Organization of Schools.
- Jones, B. L., Nagin, D. S., & Roeder, K.(2001). “A SAS procedure based on Mixture Models for Estimat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Vol.29, No.3, pp.374~393.
- Korman, A. K.(1967). “Self-esteem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perceived abilities and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51 No.1, pp.65~67.
- Kroger, J. (2003). Identity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Blackwell handbook of adolescence*, 4, 204~226.
- Lerner, R. M., & Steinberg, L. (Eds.). (2009).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Individual Bases of Adolescent Development (Vol. 1)*. John Wiley & Sons.
- Marcia, J. E. (1964). *Determination and construct validity of ego identity status*, The Ohio State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Munley, P. H. (1977). “Erikson’s theory of psychosocial development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0, pp.261~269.
- Nagin, K. S.(1999). “Analyz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A 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Vol.4, pp.159~189.
- Parsons, F.(1967). *Choosing a vocation*. NY: Agathon Press.

- Phinney, J. S., & Chavira, V.(1992). “Ethnic identity and self-esteem : An exploratory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Vol.15 No.3, pp.271~281.
- Savickas, M. L.(1995). “Constructivist counseling for career indecis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43 No.4, pp.363~373.
- Shaffer, D. R. & Kipp, K.(2010). *Developmental Psychology : Childhood and Adolescence (8th eds)*, 송길연 외 옮김(2012), 『발달심리학』, Cengage Learning.
- Slaney, R. B.(1988). “The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Career decision making*(pp.33~77), NJ : Erlbaum.
- Waterman, A. S., Geary, P. S., & Waterman, C. K. (1974). “Longitudinal study of changes in ego identity status from the freshman to the senior year at colleg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0 No.3, pp.387~392.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 Level in Early Adolescence and University-Major Satisfaction on Identity Developmental Trajectories

Hyoun-Gu Kang

Ji-Na Song

Su-Ji Jung

Soon-Hyung Yi

This research aimed to identify the trajectories of Korean adolescents' self identity formation and to analyze whether career decision level and university-major satisfaction had influence on determining the latent group which an adolescent belongs to.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identity developmental trajectories were divided into five groups; a group staying in a low level, a group ascending from an average level, a group ascending from a low level, a group ascending from a high level, and a group continuously descending from a high level. Secondly, career decision level in middle school and satisfaction for university-major in freshman year varied with identity trajectories. Thirdly, career decision level and major satisfact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determining which trajectory group one belongs to. This study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dolescents' career exploration in the context of distinctive personal identity, which develops through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Key word: identity development, 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 career education